



결핵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 & A

평소 결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가 결핵에 걸리면 환자들은 일단 당황하게 된다. 때문에 작은 증상 하나에도 예민해지게 마련.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환자들의 질문과 의료진의 답변을 통해 결핵 치료의 실마리를 제공해보자. <편집자주>

Q 가족 중에 결핵환자가 있어 4세인 우리 아이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폐 사진은 정상이고 피부반응검사에서 약간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INH 억제와 소화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루약이 물에 잘 안 녹아 그런지 아이가 약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비타민제를 좋아해 약 복용 후 비타민제를 주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음료수와 같이 먹여도 될까요? 결핵약 복용 중 예방접종도 가능한지요?

A 네, 모두 상관없습니다. 비타민제제와 같이 혹은 아이나 복용 후에 비타민제를 복용해도 되고요, 음료수와 같이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니까요. 예방접종도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Q 3개월 넘게 결핵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때문에 피라진아미드를 보름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복용 중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선은 관절통 등이 없으니 계속 복용하도록 하자고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식사조절 같은 게 필요할까요?

A 관절통 등의 부작용이 없다면 그대로 피라진아미드를 계속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 약을 장기복용 하더라도 중단한 후에는 정상으로 회복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는 굳이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드시던 대로 잘 드시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게 치료에 더 도움이 됩니다.

Q 결핵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불안감과 우울증에 힘들어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일까요? 그리고 목에 계속 이물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A 2차 항결핵제 중 한 종류가 간혹 불안감,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1차 항결핵제에 의한 것은 아주 드물고요, 항결핵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1차 항결핵제를 복용 중이라면 2~3일 정도 복용을 중단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증세가 호전되면 약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겠지요. 2차 항결핵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바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에 이물질감은 심리적 요인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Q 폐결핵 완치 후 다시 임파선 결핵으로 재발하여 현재는 완치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종종 가슴이 답답합니다. 재발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붓거나 하는 증상은 없는데 원래도 목 부분 임파선 결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파선은 붓지 않았습니까.

A 증상만으로 재발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 기간이 충분한 것으로 봐서 재발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네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가슴이 답답할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되지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에서 재발 유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핵치료 후유증 유무는 병변 위치와 크기에 달려있으므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Q 손등에 조그마한 혹이 생겨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류마티스, 종양 모두 아니어서 골스캔 및 조직검사 예정입니다. 류마티스로 인한 뼈침식과 결핵성 관절염의 뼈침식 현상이 MRI상 유사하게 나오는지요? 9년 전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했을 때, 늑막에 질환을 앓은 흔적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만약 결핵이 걸려서 자연 치유된 것이 시간이 지나 관절에 침투해서 결핵성 관절염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MRI 소견은 말씀하신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방사선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과거 결핵성 늑막염을 앓은 후 나중에 결핵성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결핵성 관절염이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아니므로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네요. 그러나 만약 결핵성이라 하더라도 약물 치료로 완치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